

Asia Arts Networks: Past, Present and Future

Aspects of Networking Shown in The Performing Arts

Choi, Seok Kyu

Producer of AsiaNow, Deputy Art Director for the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coupled in many case with colonization, the domination of Western capital and uncritical acceptance of Western culture have greatly influenced Asian culture and arts, so that it has been very difficult for Asian people to appreciate the value of Asian culture and arts and to develop their own contemporary culture and arts.

With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owing to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ternet revolution and frequent cultural exchanges in Asia, Asia has come an increased recognition of an 'Asian' identity and the value of Asia culture and arts. Many artists

working in Asian countries have tried to identity themselves within an Asian rather than Western point of view, and have created various contemporary cultural projects based on Asian tradit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talk about how Asian Arts Networks, particularly those for the performing arts, formed and changed through the past thirty years and what are the difficulties of the projects presented through Asia Arts Networks. In the end, I would like to classify various Asian arts networks operating actively in Asia, and to introduce their missions and characteristics.

In an early stage, Asia arts networks were begun by the governments in Asian countries, but these days not only individual artists but also independent organizations have cre-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과거, 현재, 미래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본 아시아 예술 교류

최석규

아시아나우 프로듀서, 춘천마임축제 부예술감독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현주소

근대화와 세계화(Globalization)의 과정 속에서 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파행적으로 겪은 식민지 경험, 서구의 자본과 가치기준의 무비판적인 수용 등은 아시아인들에게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내면을 돌아볼 기회를 잊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문화적인 면에서 서구 문화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찾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아시아의 문화적 가치 찾기는 서구에서 바라보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스스로 바라보는 아시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아시아 예술인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시아 문화예술의 전통과 동시대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왔고,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록 한다. 그리고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주요 단체와 기관들을 살펴보고, 그 목적과 특징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단, 여기에서 모든 예술 장르를 소개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던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가 최근 들어 여러 예술가 개인과 단체들과 다양한 예술 장르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 때문에 모든 문화예술 분야—문학, 시각예술, 음악 등을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공연 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ated diverse arts networks throughout Asia.¹

30 years of change in Asia arts network

Like a lot of international exchange networks, Asian arts networks were started for political and cultural purposes by each government within Asia. For example, more than 20 years ago, under the banner of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hosted cultural performances every year from five South East Asian countries.² These projects were initiated by the Ministries of Culture for each government, and featured nationally accepted, usually large, performances. In the 1960s and 1970s, many Asian arts and culture networks were established for political purposes, led by 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ASEAN and ASEM (Asia-Europe Meeting) at a national scale.

There were big changes in Asian arts networks from the 1980s to 1990s. Along with internet revolution and many funding resources from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s³ not only government-driven, but also diverse nonprofit independent arts organizations started international networking in Asia. In addition individual artists from various arts forms have started their own personal exchange in this time.

In the 1980s Kuo Pao Kun from Practice Performing Arts and Ong Keng Sen from Theatreforworks in Singapore started to create their own Asian networking and finally cre-

ated Arts Network Asia in late 1990. Under the support of the Japan Foundation, Makoto Sato, from Black Tent Theatre in Japan developed many workshop and seminar exchanges in the field of theatre. After he became a director of Setagaya Public Theatre in Tokyo, he has worked on many collaborating productions with Asian artists in the 1990.

Like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ra, the features of Asian arts networks from the 1990s and 2000s were decentralization and diversity. First of all, aside from artist networks, specialized networking organizations for the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were established. For example, Little Asia Exchange Network started for theatre and dance exchanges in 1997 among Asian

1 Asia Arts Network is a concept rather than a specific network organization existing in Asia. Because of my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talk about performing arts networks and its projects in Asia rather than ones from literature, visual arts, music and so on. Therefore Asia Arts Network means Asian Performing Arts Networks in this paper.

2 Marion D'Cruz, Asian Performing Arts Forum I,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007

3 International foundations means multinational arts and culture foundations such as Ford Foundation, Rockefeller Foundation and so on. In addition The British Council from UK, l'Association Française d' Action Artistique from France, Goethe Institute from Germany and the Japan Foundation from Japan can be included in these categories.

탈중심과 다양성,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변모

모든 국제 문화예술 교류의 시작이 그러하듯이,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도 국가 정부 기관들의 정치적, 문화적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 예를 들면, 20년 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ASEAN)의 주도 하에, 당시 ASEAN 회원국이었던 동남아시아 5개 국가의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공연이 매년 개최되었다. 해당 국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각국의 문화부가 주최한 것이다 보니, 공연예술 교류의 대부분이 관광 산업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천, 후원하는 작품으로 구성되었다.² 즉, 초기의 문화예술 네트워크는 ASEM(Asia-Europe Meeting), ASEAN 등과 같은 정치적 기구와 각국의 문화부 및 국립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로 오면서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 인터넷의 혁명과 더불어 각국 정부나 다국적 국제 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³의 기금 지원에 힘입어 비영리 독립 문화예술 재단과 개별 단체들의 아시아 아트 네트워킹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적 네트워킹을 시작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1980년대 싱가포르의 극작가 쿠오파오 쿤(Kuo Pao Kun, Practice Performing Arts School 설립자)과 연출가 옹켄센(Ong Keng Sen, Theatre works 대표)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의 네트워크는 1990년에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Art Network Asia)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마코토 사토(Makoto Sato, 극단 Black Tent 연출자)를 중심으로 하

는 연극 장르의 아시아 네트워크는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와 워크숍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마코토 사토는 일본의 세타가야 공공극장(Setagaya Public Theatre, Tokyo)의 극장장이 된 후, 많은 아시아 국제 공동 창작 공연을 만들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는 디지털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인 탈중심, 다양성의 요소를 갖게 된다. 첫번째 특징은 정부 주도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여러 예술 장르에서 국제교류와 협력이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1997년 아시아 소극장 공연 기획자(Presenter) 사이에서 만들어진 ‘리틀 아시아 교류 네트워크’(Little Asia Exchange Network), 199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아트 센터들의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인 ‘아시아 태평양 아트 센터 협회’(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res), 2004년 아시아 지역의 공연예술 축제 네트워크인 ‘아시아 공연예술 축제 협회’(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의 창립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두번째 특

1 마리온 드 크루즈(Marion D'Cruz), 아시아 예술가들의 네트워킹과 공동창작, <아시아 공연예술포럼>, 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2 앞의 책.

3 다국적 국제 재단으로는, 포드 재단, 록펠러 재단을 비롯해서, 각 국가의 문화예술 재단 - 영국의 영국문화원(The British Council), 프랑스의 AFFA(L'Association Française d'Action Artistique), 독일 문화원(Goethe Institute), 그리고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 등이 있다.



presenters from small scale arts centres. The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res in 1996 and the 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in 2004 started their own networking to share ideas and exchange programs among Asian arts centers and performing arts festivals.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Asia Arts Networks in this time is that international co-producing works(collaborating productions) and art residency program spread out in Asia. The Arts Residency Program from Asialink, Australia, and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Korea, gave Asian artists great opportunities to explore cultural differences, to generate ideas, and to inspire each other through workshops, conferences and collaborating works. These kinds of works also helped Asian artists to explore the value of

Asian traditional arts and culture, and to create new contemporary works based on their own traditions.

The last characteristic of Asia Arts Networks in this time is the spread of human networking through Asian arts markets. The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started in 1994 and the Tokyo Performing Arts Market in 1995, and other arts markets in Indonesia, China, Singapore and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t role of personal networking not only among artists but also between artists and presenters. Even though the main purpose of arts market is to increase international touring possibilities of performed productions, arts markets provide an opportunity for artists to meet present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o share ideas, future project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ng works.

(리아우)는 2007 리틀 아시아 크리에이터스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동 창작 작품이다.

Riau, Collaborating production by Little Asia Creators' Meeting 2007.

장은 공동창작(Collaborating works)과 레지던시 프로그램(Residency Program)의 확산이다. 호주의 '아시아 링크'(Aiaslink)는 아시아 지역의 예술기관에 호주 예술인과 기획자를 파견함으로써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를 확산시켰다. 한국의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의 경우도 아시아 여러 국가의 문화예술 관련인사를 초청하여 현지에서 거주하게 한다. 이는 한국 문화예술의 현장과 참여 국가의 문화예술을 상호 이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리틀 아시아 교류 네트워크'(Little Asia Exchange Network), '리틀 아시아 크리에이터스 미팅'(Little Asia Creators' Meeting),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Arts Network Asia) 등의 네트워크는 아시아 연극, 무용, 다원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워크숍, 컨퍼런스, 공동창작 등은 그간 단절되었던 아시아 예술인 간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아시아 문화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하며, 아시아의 전통과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s)을 찾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아트마켓을 통한 아시아의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1994년 호주, 1995년 일본에서 시작된 아트마켓은 현재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아시아 예술가와 기획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아트마켓의 기본 목적은 자국의 공연

예술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데 있긴 하지만, 아트마켓에서 열리는 다양한 세미나, 포럼, 공동 제작 및 차기 작품 제안, 워크숍 등이 예술가와 기획자 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를
다양한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생산적인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고, 지금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프로젝트들도 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들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⁴는 무엇일까?

먼저 기금(Fund)의 문제다.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금을 개발해야 한다. 네트워크의 수평적 교류를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국가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자칫 일방적인 문화전파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프로젝트는 기금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민간의 독립 예술단체와 개인 예술가,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프로젝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둘째로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확

4 마리온 드 크루즈는 2007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공연예술 포럼에서 아시아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로 '기금'과 '언어'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Difficulties for the development of Asian Arts Networks

Many projects have been produced with the help of Asian arts networking organizations, and a number are still ongoing with Asia. What difficulties have we had for developing Asian arts networks in these projects? ⁴

First of all is securing funding for each project. The projects through Asian arts networking organizations should be fair exchanges rather than one country takes the lead. The project led by one country might be in danger in terms of mutual cultural exchanges, since it can easily degenerate into unilateral cultural transmission. Also projects initiated by government are much easier for fundraising than independent ones led by individual artist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Particularly urgent needs are to develop funding possibil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and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free from political control.

Secondly it is true that projects produced through Asian arts networking organizations require exceptional skills in management in terms of securing professional staff, overcoming language barrier and decreasing differences of culture and logistics in each country.

In the end, setting up a clear mission is very important for those involved parties such as governments, artists and audiences, and continuity and long term development

are essential. Many times the projects led by governments are results-oriented, and, in the process, artists and audiences may have many difficulties. Also projects led by only artists might forget where the audiences are. Therefore clear mission for each party and target segmentation for the benefit of the project is required. Proposals from various Arts networking organizations should not be one-time only, but be long-term and continuing projects for intercultural exchanges in Asia.

⁴ Marion D'Cruz has already debated difficulties for developing Asian arts networks at Asian Performing Arts Forum I in Seoul, 2007. She also pointed out funding and language and logistics barrier.

Choi, Seok Kyu is deputy artistic director for the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an annual performing arts festival for contemporary mime, physical and visual theatre, street theatre, and site-specific performance. In addition, He directs AsiaNow, a production company whose mission is to support and produce new Asian work in contemporary theatre as well as contemporary dance. He is also a lecturer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He trained 'Arts Management' at the post-graduate school of Arts, Chung-Ang University and received MA degree in 'Creative Producing' of MA Advanced Theatre Practice at the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 in London, UK.

translated by the writer



보되어야 한다. 또한 대개 공용어로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 언어적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국가 간의 문화적, 법률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을 통해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목적 설정과 해당 프로젝트의 지속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와 시행이 정부, 참여 예술가, 또는 관객에게 어떠한 의미이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와 전략을 차별화한다. 예컨대,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지나치게 결과물 위주여서 과정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는 해당 예술가만 향유하고 관객과의 소통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만족시

키거나, 기금 단체, 참여 예술가, 관객이 모두 행복한 프로젝트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프로젝트의 분명한 목적과 타겟 설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예술가의 창조적 에너지의 교류가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적 혹은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고,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글쓴이 최석규 1994년 춘천마임축제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공연 예술축제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춘천마임축제의 부예술감독으로 공연 프로그래밍과 예술가 개발 프로그램, 국제워크숍과 컨퍼런스를 기획하고 있다. 2003년 영국정부 장학금으로 런던의 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에서 Creative Producer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 연극의 국제 교류와 국제 공동창작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AsiaNow를 설립하여 극단 여행자, 사다리움직임 연구소, 극단 뛰다 등과 함께 공연예술국제 교류에 힘쓰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연기획과 제작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의하고 있다.

아시아 아트 네트워크의 기관들 ▶
Asia Art Network Organizations ▶
on the next pages

1

국가 주도 혹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의 기관

▶ 아시아링크

<http://www.asialink.unimelb.edu.au>

아시아링크는 호주 정부의 지원으로 1990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아시아와 호주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아시아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시아링크는 정보 공유와 교환, 활발한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각예술, 공연예술, 문학, 예술경영 등 예술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왔다.

아시아링크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매년 40명의 호주 예술인을 선발하여, 아시아 회원국에 거주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영감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아시아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 문화동반자사업

<http://www.culturefriends.or.kr>

2005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전개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특히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국내외 문화일반,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등 6개 분야의 문화예술 인사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와 한국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의 문화예술인과 예술경영, 행정가들을 초청 연수함으로써, 각 문화예술 인사들에게 다양한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문화예술 인사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 아시아-유럽 재단

<http://asef.org>

ASEM의 회원국들에 의해 1997년에 설립된 ASEM의 유일한 상임기구이다. 아시아-유럽 재단은 민간 및 공공 단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회원국들 간의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업무를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유럽재단의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아와

유럽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해 지역과 이슈를 강조한 상호 네트워크를 확립하는 것이다. 회의, 강연, 워크숍, 세미나,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동아시아 국가연합 문화정보위원회

<http://www.pia.gov.ph/asean-infoculture>

동아시아 국가연합 문화정보위원회는 동아시아 국가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7)의 산하단체로, 1978년 출범했다.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 정보에 대한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5년 이후 문학과 동아시아 연구, 시각 및 공연 예술, 라디오/텔레비전 및 영화/비디오, 인쇄 및 미디어 등 네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2

아시아 아트센터와 공연예술 축제 네트워크

▶ 아시아 태평양 아트센터 협회(AAPPAC)

<http://www.aappac.net>

아시아 태평양 아트센터 협회는 1996년에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30개의 대형 아트센터들이 회원으로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이 속해 있다. 이 조직은 주로 아트센터의 대표(CEO)와 프로그램 기획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회원국을 돌면서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공연예술 산업의 리더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예술가와 관객개발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아트센터 간 정보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사람과 문화예술의 보다 나은 이해를 증진시키며, 스테프 교육, 마케팅 및 극장 경영, 기술 운용에 관한 문제점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 아시아 공연예술축제협회(AAPAF)

<http://www.aapaf.org>

2004년 싱가포르에서 창립된 아시아 공연예술축제협회는 아시아 지역 내의 공연예술축제들의 네트워크 조직이다. 현재 중국 상하이 국제예술축제, 싱가포르 예술축제, 서울 국제공연예술축제, 춘천 마임축제, 홍콩 예술제, 자카르타 국제예술축제 등을 열고 있다. 아시아 공연예술축제협회는 아시아의 공연예술 축제와 그에 준하는 문화예술 조직과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아시아 예술가와 예술축제 간 공동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며,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하고자 한다. 세미나를 열고, 축제에 대한 지식, 경험, 정보, 통계 자료를 공유한다.

3

장르별 네트워크 단체

▶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Arts Network Asia)

<http://www.artsnetworkasia.org>

아트 네트워크 아시아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예술의 질적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포드 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1999년 싱가포르의 연출가 웅캉센(Theatre works 대표)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연출가,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창설됐다. 아시아 권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공동 창작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프로젝트들은 워크숍, 세미나, 레지던스 프로그램, 공동창작 등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사무처 역할은 싱가포르의 극단 씨어터 워크스(대표 웅캉센, 1999-2003, 2007-), 말레이시아의 파이브 아트센터(대표 마리온 드 크루즈, 2004-2006)가 맡아왔다.

▶ 리틀 아시아 교류 네트워크

(Little Asia Exchange Network)

리틀 아시아 교류 네트워크는 아시아의 소극장 기획자들이 극장의 공연 프로그램 및 정보 교환과 극장 인적 교류를 목적으로 시작된 네트워크이다. 리틀 아시아 교류 네트워크는 1997년 도쿄의 타이니 엘리스 소극장(Tiny Alice Theatre), 타이베이 크라운 아트

센터(Crown Arts Center), 홍콩 아트센터(Hong Kong Arts Center)가 중심이 되어 출범했다.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하나의 아트센터가 중심이 되거나 한 명의 예술감독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탈중심적인 국제 교류의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아트센터의 모든 기획자들이 돌아가며 센터의 역할을 한다. 연극을 중심으로 하던 초창기 네트워크에 1999년부터는 무용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연극과 무용에 대한 강연, 초빙 예술가와 현지 예술가 사이의 포럼, 사진전시, 워크숍 등을 개최하며, 아시아의 이웃한 예술가들 사이에 총체적인 상호 이해를 돕고 체험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연극 중심의 네트워크는 '리틀 아시아 크리에이터스 미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모임으로 국제 공동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 리틀 아시아 크리에이터스 미팅(LACM)

리틀 아시아 크리에이터스 미팅은 2003년 홍콩 아트센터에서 첫 프로젝트를 시행한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04년 타이베이 아티스트 빌리지, 2005년 한국의 후용공연예술센터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창작 워크숍과 국제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 오픈 클래스 등을 열었다. 초기부터 공동창작물에 대한 목표 지향적인 관점보다는, 다원예술 혹은 비정형 예술가 간의 자발적인 창작 워크숍과 작업 방식 교류, 서로 다른 장르 간의 소규모 협력과 컨퍼런스 등에 목적을 두고 출발했다. 2006년에는 비정형예술 작품을 지향하는 아시아 아트플렉스(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의 공동 창작 파일럿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아시아 국제 공동창작물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 베세토 연극제(BeSeTo Theatre Festival)

동북아 3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된 아시아 연극 네트워크 페스티벌이다. 베세토 연극제는 동양 연극의 주체성과 미학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한국, 일본, 중국이 갖고 있는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며, 정서적, 정신적 이해를 통하여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 매년 돌아가며, 연극 공연, 학술 세미나, 아시아 연극인의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

4

아시아 아트마켓

공연예술의 아트마켓은 일종의 견본시(見本市)로서, 예술가와 기획자를 매개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1980년 프랑스 파리에서 최초의 아트마켓인 'Mars'가 개최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0년대에 호주와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아트마켓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연예술 작품과 관련 단체들의 부스 전시와, 공연 작품 쇼케이스, 예술가와 기획자가 새로운 작품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 다양한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워크숍의 학술 네트워크 행사 등이다. 최근 아트마켓을 통하여 공연예술가와 기획자의 국제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 아트마켓은 각 나라별로 개최 시기와 특징을 달리 하지만, 근본적으로 각국의 공연예술 작품의 국제 진출을 목표로 하며, 예술가와 기획자 간 인적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 있다.

1

Government driven and supported Networking organizations

Asialink

<http://www.asialink.unimelb.edu.au>
 'The Asialink Centre' was established in 1990 as a joint initiative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Commission for the Future and the Myer Foundation, one of Australia's oldest and largest philanthropic organizations. Asialink has for years made a commitment to connecting Asia and Australia and has explored many opportunities to create networks. It facilitates exchange and information sharing, generates works and supports and sustains a lively and open culture exchange. In the part of Arts, Asialink has supported various activities of visual arts, performing arts, literature and arts management. Through Asialink Residency Program, 40 Australian artists and arts managers go aboard each year in

아시아 아트마켓의 현황

아트마켓	개최지	창설연도	개최시기
호주 아트마켓 (APAM) www.performingartsmarket.com.au	호주 애들레이드	1994년	매 짝수 해 2월
아시아 아트마트 (AAM) www.asianartmart.com	싱가포르	2001년	매 홀수 해 6월
도쿄 아트마켓 (TPAM) http://www.tpam.or.jp	일본 도쿄	1995년	매해 3월
인도네시아 아트마켓 (IPAM) http://www.ipam.or.id	인도네시아 발리	2005년	매 홀수 해 6월
상해 아트마켓 (CSIPAF) http://www.artsbird.com	중국 상해	1999년	매해 10월
서울아트마켓 (PAMS) http://www.pams.or.kr	한국 서울	2005년	매해 10월

Asian partnership countries. The focus of Asialink Residency Program is on forging relationships exploring differences, generating ideas, getting inspired, finding all the best food in the region, and making friends. This program has generated connections and has allowed for the organic development of networks and capacities in Asia.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CPI)

<http://www.culturefriends.or.kr>

The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was established in 2005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Korea, in order to develop bilateral cultural exchange not only in Asia but also throughout the world. The Asia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ACPI) is a cultural residency project which invites specialists within the fields of culture, arts, cultural industry, tourism, and physical educa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experience their sectors within Korea. ACPI aims for understanding cultural diversity, promoting cultural exchange and providing a human network.

Asia-Europe Foundation(ASEF)

<http://www.asef.org>

The Asia-Europ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97 by the partners of the Asia-Europe Meeting(ASEM), ASEF is the only permanent physical institution of the ASEM process. ASEF works in partnership with other public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actors to ensure its work which is broad-based and balanced among the partner countries.

ASEF seeks to promote better mutual understanding and closer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 of Asia and Europe through greater intellectual, cultural, and people-to-people exchange. These exchanges include conferences, lecturer tours, workshops, seminars and the use of web-based platforms. The major achievement of ASEF is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t bi-regional networks focused on areas and issues that help to strengthen Asia-Europe relations.

Committee of Culture and Informatio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s Nations (ASEAN COCI)

<http://www.pia.gov.ph/asean-infoculture>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was established in 1967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social progress and cultural development within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ASEAN Committee of Culture and Information (ASEAN COCI) is a committee for cultural development set up in 1978 to promote effective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mong the peoples of ASEAN as well as in furthering regional development.

Since 1985, there are four working groups under the ASEAN COCI: Literary Works and ASEAN Studies, Visual and Performing Arts, Radio/Television and Films/Video and Print and Interpersonal Media.

2

Specialized Networking Organizations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res(AAPPAC)

<http://www.aappac.net>

The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res (AAPPAC) was established in 1996 with the assistance of a number of prominent performing arts cent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with a focus of: establishing the Asia Pacific Region as a leader in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Activities include promoting the exchange of artistic programs in art centres to expand the experiences of the artists and audiences within the region, leading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ing arts industry in the region, fostering closer ties and better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s of the region, establishing and providing an information network for arts centres, and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skills and expertise available within the

region. The Association of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Centres has 30 prominent performing arts cent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as its members.

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AAPAF)

<http://www.aapaf.org>

Inaugurated in Singapore in 2004, The Association of Asian Performing Arts Festivals (AAPAF) is a network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s in Asia such as, among others, the China Shanghai International Arts Festival, the Singapore Arts Festival, the Hong Kong Arts Festival, Seoul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and the Jakarta International Arts Festival.

AAPAF was established with the objectives 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Asian festivals and other similar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artists and festival organizations in Asia, to facilitate and create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in artistic productions and operational fields, to encourage the exchange of experience and knowledge among members, to coordinate training programs and seminars for the betterment of members' activities, to collect and make available information and statistical data to members and external organizations, and to represent the common interests of Members in their dealings wi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in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elds.

3

Networking Organization for theatre, dance and multidisciplinary arts

Arts Network Asia(ANA)

<http://www.artsnetworkasia.org>

Arts Network Asia is a group of independent artists, cultural workers and arts activists primarily from Southeast Asia that encourages and supports regional artistic collaboration as well as developing managerial and administrative skills within Asia. ANA provides workshop, seminar, research work,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residency projects. ANA's collaborating program pays attention to the diverse perspectives of a global Asian urban metropolis, the continuities and disruptions with Asian tradition, the multiple contexts of everyday life.

ANA was established in 1999 by Ong Keng Sen, director of Theatre works from Singapore and other directors and arts managers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has been supported by the Ford Foundation and the Asian Cultural Council, through special funds from the Rockefeller Foundation. The ANA was initiated by Theatre Works (Singapore) from 1999 to 2003, then Five Arts Centre from Malaysia hosted for 2 years. Now this network is directed by Theatre works in Singapore.

Little Asia Exchange Network(LAEN)

Little Asia Exchange Network is a network organization formed by Asian small theatre presenters with an aim to facilitate the exchange of theatre personnel, performance and information. It was founded in 1997 by Tiny Alice Theatre in Tokyo, Japan, Crown Art Center in Taipei, Taiwan, and the Hong Kong Arts Center in Hong Kong, China. LAEN is an exchange network without a center or an artistic director. Every presenter in LAEN is itself a center, so they focus on fair and mutual exchange within arts centers.

LAEN started with a theatre network, and the dance network was added in 1999. As a non-governmental exchange network, LAEN has provided many workshops, seminars and collaborating productions in dance and theatre to widen the range of experience and deepen mutual understanding among Asian neighbors.

Little Asia Creators' Meeting (LACM)

LACM has worked through various programs such as creative workshops, international conferences, presentations and open classes at Hong Kong Arts Center in 2003, Taipei Artist Village in 2004 and Hooyong Performing Art Centre and Seoul Fringe Festival in 2005. Through collaboration works in LACM 2006, LACM artists have tried to explore multicultural activity with a philosophy which is free from any genre or existing discipline in arts form. LACM created a collaboration production *Riau* working with Asian artists in 2007 that was commissioned by Asia Artplex.

4

Networking Organizations for Asia Performing Arts Markets

Performing arts markets have become international trade fairs for the arts field, helping to create a bridge between artists and presenters. The 'Mars' market in Paris in 1980 may have been the first arts market, and the concept then spread to Canada and Asia. The first performing arts markets in Asia began in 1990 in Australia and Japan.

The program of performing arts markets may include exhibition booths, production showcases and network meetings between artists and presenters. Through such network meetings as international forums, conferences and presentations of new projects, performing arts markets may play a great role in creating human networks within Asia.

Asia Arts Markets

Arts Market	Country	Established Year	Time
Australian Performing Arts Market http://www.performingartsmarket.com.au	Australia	1994	Feb, Every Even Year
Asian Arts Mart http://www.asianartsmart.com	Singapore	2001	June, Every Odd Year
Tokyo Performing Arts Market http://www.tpam.or.jp	Japan	1995	March, Every Year
Indonesia Performing Arts Mart http://www.ipam.or.id	Indonesia	2005	June, Every Odd Year
China Shanghai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air http://www.artsbird.com	China	1999	Oct, Every Year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 http://www.pams.or.kr	Korea	2005	Oct, Every Year